

# 사회부총리 김상곤, 행자 김부겸·이개호 거론

### 국방 송영무, 통일 송영길·우상호, 문체부 도중환 유력 文대통령 검증 끝나면 이르면 주말께 장·차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일부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각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애초 이번 주내에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무총리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이후 다음주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면 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 기대를 받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순서에 상관없이 검증이 끝난 인사부터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입각하는 정치인의

경우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오늘은 인사가 없다”며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겨 시간이 걸리고 해서 차관(인사)은 이번 주말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은 묶어서 발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선 차관들 중심으로 빨리 빨리 하고 있다”면서도 “장관 지명 및 차관 인사의 선수가 없으며 장관이 차관보다 먼저 지명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된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광주 출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생 인

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지만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앞장섰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대구·경북(TK)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고, 대선(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입각 1순위로 꼽혀왔다.

전남 출신의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으로 대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또 다른 농림부 장관 후보로 김영록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총장은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대선 캠프에서 국방공약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근기 전 의원과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도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수 정권과 확연히 달라진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통일 철학을 공유한 정치권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시인 출신의 도중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기 내각 여성 30% 공약을 감안하면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UN과 함께 민주·인권·평화 연대 시작”

### 윤장현 ‘5·18 학술대회’ 참석 출국



또 5·18 민주화운동 기록을 담은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판 번역자인 니마 마타스와 설갑수씨, 광주대 교수이자 난민운동가인 윤비토나씨도 자리를 함께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유엔(UN)서 열리는 5·18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25일 출국한다.

윤 시장은 26일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리는 ‘5·18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해 “바르지 못한 것으로부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온 광주가 UN과 함께 민주·인권·평화를 위한 연대 등 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수 정권과 확연히 달라진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통일 철학을 공유한 정치권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시인 출신의 도중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기 내각 여성 30% 공약을 감안하면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사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 개정판도 선보인다. 이 책은 1985년 출간된 5·18 최초 백서로, 5·18 진실에 관한 기록과 증언을 담고 있다.

윤 시장은 이 책을 발간할 당시 5·18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 제공했으며 1999년 첫 영문판 출간 때 사재를 털어 지원한 등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윤 시장은 국제학술대회와 5·18 기념 사진전, 뉴욕 한인회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8일 귀국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원전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허술”

### 이미옥 시의원 지적

한빛원전 방사능 위기상황 발생시 광주시 관내 각 구호소 수용 인원을 3.3㎡ 당 3명으로 산정해 조선대에만 무려 41만명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광주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이미옥(민중연합·비례) 의원은 25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는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밖에 있지만 대응 매뉴얼의 세부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응매뉴얼이 사고발생 지점의 풍향·풍속·누출된 방사선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사성 물질이 풍향과 풍속에 따라 광주에 도달하는 시간 등을 따져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발생시 대피소 수용인원 등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선대 41만5000명, 조선이공대 14만7000명, 광주대 29만명, 송원대 9만5000명 등 구호소마다 정해진 수용인원도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현장조치 매뉴얼을 2차에 걸쳐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유라 돌아온다... 외교부, 송환 일정 등 조율

전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로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여면서 외교부가 관련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

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정 씨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당국이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있는 수사 당국 관계자가 정 씨와 동행해 함께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차 마시며 대화하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의 전에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문대통령,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조현욱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 김희중 특사, 교황에 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교황 묵주 선물 송영길 특사 면담 푸틴 “北에 특사 파견 용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교황청 특사단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희중(70)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대주교)은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요 일한 일련 직후 교황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진서를 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고,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에 대해 “상황이 어려울수록 무력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남북이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은 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해달라며 김 대주교에게 묵주를 건넸다.

바티칸 언론은 한국의 대선 과정과 결과 등을 전하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새 대통령의 인생 궤적과 함께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어 교황과 교황청 내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반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중재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일행을 맞아 면담하면서 ‘북한 상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는가’란 송 특사의 질문에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송 특사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전쟁을 통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또 제재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전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역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